

“폐기물처리시설 대안 마련 절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재활용 발생량 시설 처리용량보다 많고 운영사 돈 되는 유가품만 선별 수용”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해묵은 지역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

양영환 시의원(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은 2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조사특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주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따르면 종합리사이클링에 설치된 재활용품 집하선별 시설용량은 60톤/일이나, 20올해 요일별 평균 수입 운반량 평균은 월요일 100톤, 화요일 90톤, 수요일 92톤, 목요일 88톤, 금요일 80톤 이상으로 시설용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종합리사이클링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에는 당일 처리하지 못한 재활용품 적치를 위한 대규모 야적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종합리사이클링 재활용선별시설 야적공간은 약 604㎡(182평)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완산·덕진 선별시설 연면적 1261평의 1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재활용 선별 후 판매를 통해 운영사



아시아 현대미술전 개막식

아시아 14개국 36명의 청년미술가들이 참여하여 109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아시아 현대미술전 “ASIA YOUNG 36”이 도립미술관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가품(종이, 병, 고철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양 의원은 “전주시와 종합리사이클링 운영사가 맺은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단가는 톤당 약 2만5000원으로, 선별 후 나오는 유가품은 전액 운영사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과 같이 재활용 발생량이 시설 처리용량보다 많고 재활용 야적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사는 돈이 되는 유가품만 선

별해 받을 것이 뻔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 종합리사이클링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각종 부산물 처리문제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폐기물 처리 후에는 반드시 부산물이 남게 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폐기물매립시설로 이동해 매립하는 과정을 공통으로 거치고 있다”며 “종합리사이클링타운도 전주시 유일

한 매립장인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금처럼 아무 준비도 없이 종합리사이클링을 준공한 뒤에 매립장에서 반입을 거부하게 될 경우 전주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재기자



도교육청, 대입 수시 대면 진학상담실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대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2일부터 시작되는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공교육 차원의 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 수시 대면 진학상담실’을 9일까지 일주일간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사전 예약 없이 도교육청 7층 대입지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엔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 등 수시 전형 지원과 관련된 개인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교육청은 이번 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북대입진학지원단 소속 학교 현장 교사 31명을 운번제로 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군산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 등 6개 교육지원청도 3일과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상담실을 운영한다”면서 “익산과 정읍, 남원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서곡광장-추천대교 선형변경 반대, 원안대로 도로개설’ 촉구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 “팔복동 공단 밀집해 있고 서부우회도로 혁신도시 잇는 중심도로 기능 하고 있어”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은 서곡광장-추천대교 원안 도로 개설을 촉구했다.



송정훈 의원

송정훈 시의원(조촌, 동산, 팔복, 송천2동) 2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공사가 선형변경 돌발제한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고, 사업기간은 지연되고 있다”며 당초 원안

대로 도로개설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따르면 이 도로 주변에는 팔복동 공단들이 밀집해 있고, 팔복동을 비롯한 송전동, 동산동, 조촌동 등 전주 북부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곡지구, 효자동 신시가지 주민들의 통행이 늘어 동부우회도로부터 팔복동 공단, 서부우회도로, 혁신도시를 잇는 중심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당초 이 도로는 지난 1973년 세워진 도로계획선에 따라 천변 옆 팔복동을 일자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도로개설 지형의 높낮이 차이로 도로를 성토해 개설시 인근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해 연

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가 든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송 의원은 “도로선형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기존도로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와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데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존도로의 장점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선형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변경안으로 추진 시 기존 도로계획보다 굵은 길이 2곳이 더 생기고 회전 반경도 작아져 이 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사고 위

험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1973년부터 40년 동안 도로계획선에 포함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온데다 선형이 변경될 경우 일부 종중 선산까지 침해당할 우려가 커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쪽에서는 도시 재생을 위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40년이 넘게 계획되고 이미 합의된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금융 취약계층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전주시가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나섰다. 전주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악성화로 인해 가정파탄 및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혁신센터 3층(완산구 물왕말 3길 29)에 사무실을 열고 소장과 상담사 등 전문인 3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상담소는 △채무관리상담(효율적인 지출관리, 교육·주택·창업 등 목적자금 관리) △채무조정상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연계, 서민금융지원안) △금융교육(공공기관 및 일

반시민) △법원신청서류 대행(공적구제제도 법원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등 금융취약계층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금융복지상담소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는 한편 신속한 사전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20일 상담소 개소식에서 주민센터 직원대상 금융복지강좌도 진행한다. 전주시 사회정책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8-030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